

畜産部門의 國內自給率에 關하여

李 哲 鉉

責任研究員, 畜産開發研究室

- I. 머리말
- II. 飼料의 國內自給率
- III. 畜産物 生産의 自給率
- IV. 畜産物의 純自給率
- V. 맺는 말

I. 머리말

「輸入도 많이 하고 비싼 쇠고기를 많이 찾을 것이 아니라, 國內自給 能力이 충분하고 값이 싼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소비하여 國家經濟에도…」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들을 수 있다.

우리말 辭典에는 自給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필요한 物資를 제 힘으로 장만하고 보장함」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개념을 적용하여 自給率을 정의한다면, 國內消費量 중 國內自給量의 比率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量」은 最終産物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더욱 넓게는 그 原料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間財가 輸入物 일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즉 石油의 加工産物인 휘발유, 경유 등이 國內에서 100% 生産된다고 해서 石油産物이 完全自給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飼料의 給與가 生産活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畜産에 있어서의 自給은 앞서의 설명처럼 最終産物인 畜産物 자체의 自給率만 들어서 自給 여부를 논하여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畜産物 生産過程을 포함하여 飼料의 自給 여부까지 따져야 할 것인지는 檢討해 볼 만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특히 配合飼料에 대한 依存度가 매우 높은 養豚과 養鷄 부문에서 飼料의 海外依存度 深化傾向을 무시한 채 畜産物 자체의 자급 가능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보여진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畜産部門의 自給率을 파악하고자 飼料의 自給率을 포함한 개념에서 自給率 計算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더 정확한 의미의 自給率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飼料의 國內自給率

飼料의 自給率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간단하게는 飼料總供給量 중에서 國內

表 1 飼料 類型別 需給狀況

單位：千噸

	濃 厚 飼 料				粗 飼 料					合 計	
	流 通 飼 料			農家自 給飼料	計	青 草	乾 草	埋 草	農 產 副產物		
	配合飼料	單味飼料	小 計								
1975	901	789	1,690	1,976	3,666	3,267	1,379	724	1,165	6,535	10,201
1976	1,382	639	2,021	1,833	3,854	3,169	1,507	778	1,110	6,564	10,418
1977	1,899	619	2,518	1,928	4,446	3,204	1,538	618	1,140	6,500	10,946
1978	2,693	405	3,098	1,997	5,095	3,224	1,549	620	1,117	6,510	11,605
1979	3,880	392	4,272	1,724	5,996	3,498	1,643	762	1,094	6,992	12,988
1980	3,462	480	3,942	1,871	5,813	4,407	2,101	938	1,320	8,766	14,579
1981	3,491	691	4,182	1,831	6,013	3,406	1,579	789	1,028	6,802	12,815
1982(P)	4,420*	641	4,341	1,895	6,236	3,283	1,633	805	950	6,560	12,796

* 실제치입.

資料：農水産部, 韓國飼料協會, 「飼料便覽」, 1982.

表 2 配合飼料의 自給率

	物 量 基 準				代謝 에너지 基準			
	國內供給	輸 入 分	合 計	自 給 率	國內供給	輸 入 分	合 計	自 給 率
		千噸		%	百萬 Mcal			%
1975	255.4	658.3	913.7	28.0	575.3	2,478.9	3,054.2	18.8
1976	322.6	1,072.1	1,394.7	23.1	483.1	2,797.1	3,280.2	14.7
1977	383.3	1,535.7	1,919.0	20.0	579.9	4,201.9	4,781.8	12.1
1978	506.6	2,211.1	2,717.7	18.6	790.3	6,188.0	6,978.3	11.3
1979	629.5	3,282.9	3,912.4	16.1	925.7	9,457.0	10,382.7	8.9
1980	600.0	2,886.5	3,486.5	17.2	918.6	8,107.1	9,025.7	10.2
1981	608.7	2,901.7	3,510.4	17.3	1,019.1	8,864.0	9,883.1	10.3
1982	616.1	3,813.0	4,429.1	13.9	933.7	11,647.3	12,581.0	7.4

註：導入糧穀(小麥 등)의 加工副產物은 輸入分으로 취급.

供給量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는 각종 飼料의 質的 差異와 各 家畜의 特性을 무시한 결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調査·集計가 불가능한 粗飼料供給量과 農家副產物 등 統計值의 信憑性 문제의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는 輸入飼料 原料를 중심으로 하여 自給率을 계산하기로 한다. 이는 輸入飼料原料의 量이 비교적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使用實績이 자세히 집계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는 輸入飼料原料를 이용한 配合飼料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여 거의 대부분의 養畜農家가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飼料의 自給率은 가축에 필요한 營養素 要求

量을 기준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統計值를 이용한 供給量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욱 정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畜産物 生産에 필요한 營養素와 年末 家畜飼育頭數가 섭취한 營養素量의 合計에서 수입된 사료의 營養素量을 뺀 나머지가 자급된 營養素量이므로 이를 계산한 것이 自給率이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영양소가 적은 부피 사료의 量이나 粗飼料 供給量의 부정확한 數值 등은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正確度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營養素는 가축이 生命活動에 필요한 代謝 에너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蛋白質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단일 營養分을 기

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家畜의 특성에 따른 사료의 代謝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不完全하나 사료의 代表値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配合飼料의 自給率을 계산한 결과 물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75년에 28.0%이던 것이 1980년에 17.2%, 1982년에 13.9%로 해마다 自給率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代謝에너지를 기준으로 한 경우를 보면 物量을 기준으로 한 自給率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1975년에 19.6%, 1980년에는 10%, 그리고 1982년에는 7.4%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國內自給이 가능한 配合飼料의 원료가 사람이 먹는 食糧의 加工副産物로서 비교적 영양가치가 적은 쌀겨, 보릿겨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畜産物 生産의 自給率

畜産物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가축이 생명을 유지하고 增體, 産卵 또는 泌乳活動에 필요한 영양분을 사료를 통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즉 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그 보다 더 많은 體重이 증가하여야 하며 또 생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增體에 필요한 영양분과 생명체 유지를 위한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다.

예로서 우유 1kg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2.45

Mcal의 代謝에너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만일 400kg의 體重을 가진 젖소가 매일 15kg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36.8Mcal(2.45Mcal×15kg)의 生産 에너지와 13Mcal의 維持 에너지가 소요되므로 하루에 40Mcal의 대사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다(表 3).

우리 나라의 畜産物 需給資料를 이용하여 얻어진 畜産物 供給에 소요된 代謝에너지의 量은 <表 4>와 같다.

<表 4>에서와 같이 달걀을 공급하는 데 소요된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달걀의 생산량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 한편 單位生産量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던 쇠고기는 비교적 낮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기로서의 供給量이 오랜 기간의 飼育을 거치기 때문에 소의 維持에 더 많은 칼로리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쇠고기의 공급이 短期間의 肥育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비교적 長期에 걸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닭고기의 경우도 産卵鶏의 도태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적은 수준의 칼로리가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畜産物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가축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營養분이 필요하다. 소의 경우 增體가 없을 경우의 維持 에너지는 生體 200kg의 소일 경우 매일 7Mcal의 代謝 에너지가 필

表 3 畜産物 生産에 필요한 代謝에너지*

	쇠 고 기	돼 지 고 기	닭 고 기	달 꺾	우 유
基準 生産物生體 1kg.....			10개	1kg
代謝 에너지 要求量(Mcal)	14.50	10.32	6.46	9.12	2.45
精 肉 率(%)	42	53	55	—	—
維持 代謝 에너지(Mcal/kg)	7.0/200	3.17/45	—	—	13.0/400

* NRC 飼養標準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計算하였음.

表 4 畜産物 供給에 필요한 代謝에너지

單位: 百萬 Mcal

	쇠 고 기	돼 지 고 기	닭 고 기	달걀	우 유	합 計
1975	2,426.7	1,909.2	654.6	2,641.2	806.0	8,437.7
1976	2,583.5	2,022.0	716.9	2,780.7	914.3	9,017.4
1977	2,673.0	2,603.0	860.1	3,239.4	1,140.1	10,515.6
1978	2,564.7	3,054.1	967.7	3,413.6	1,443.7	11,443.8
1979	2,986.1	3,933.3	1,056.4	3,858.7	1,684.8	13,429.3
1980	3,214.1	4,304.0	1,069.9	4,143.2	1,904.8	14,636.0
1981	2,391.5	3,734.2	1,067.3	4,041.1	2,287.0	13,521.1
1982	2,123.1	4,227.2	1,167.8	4,108.6	2,507.1	14,133.8

表 5 畜産物 生産과 維持에 필요한 代謝에너지

單位: 百萬 Mcal

	소			돼 지			닭			합 計		
	生産	總 量	%	生産	總 量	%	生産	總 量	%	生産	總 量	%
1975	3,273.7	7,692.9	42.6	1,902.0	2,630.6	72.3	3,295.7	3,956.0	83.3	8,471.6	14,279.6	59.3
1976	3,497.8	7,742.9	45.2	2,022.0	3,151.9	64.2	3,497.6	4,192.7	83.4	9,017.4	15,087.6	59.8
1977	3,813.1	8,280.2	46.1	2,603.0	3,460.4	75.2	4,099.5	4,909.4	83.5	10,515.6	16,650.0	63.2
1978	4,008.4	8,993.0	44.6	3,054.1	4,048.6	75.4	4,381.3	5,234.7	83.7	11,443.8	18,276.3	62.6
1979	4,670.9	9,674.8	48.3	3,933.3	4,999.5	78.7	4,915.1	5,879.8	83.6	13,519.3	20,554.0	65.8
1980	5,118.9	9,814.6	52.2	4,304.0	5,322.7	80.9	5,213.1	6,248.9	83.4	14,636.0	21,386.2	68.4
1981	4,678.5	9,123.8	51.3	3,734.2	4,793.5	77.9	5,108.4	6,118.6	85.1	13,521.1	20,035.9	67.5
1982	4,630.2	9,813.8	47.2	4,227.2	5,490.1	77.0	5,276.4	6,303.5	83.7	14,133.8	21,607.5	65.4

요하다(表 3). 産卵鷄의 경우는 維持飼料뿐만 아니라 育成期間에 소요되는 사료까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젓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가서는 젓소나 産卵鷄가 결국은 쇠고기나 닭고기의 형태로 소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와 닭으로 크게 구분하여 生産과 維持에 필요한 代謝에너지량을 (表 5)에 실었다.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의 경우 代謝에너지 總所要量 중에 生産物에 이용된 양은 50%가 넘지 않고 있어 增體나 泌乳에 필요한 에너지보다는 維持에너지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돼지나 닭의 경우를 보면 그 비율이 養豚이나 養鷄의 生産回轉率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돼지의 生産에너지 비율이 75% 수준임을 볼 때 약 25% 정도의 代謝에너지가 育成中인 돼지의 영양소 所要量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養鷄의 경우도 약 15%에

해당되는 영양소 所要량이 育成鷄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畜産物 生産의 回轉期間이 飼養管理技術의 발달과 보급으로 점차 단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配合飼料 이용의 보편화와 畜産專門化 추세에 따른 規模의 擴大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表 6 참조).

表 6 配合飼料의 利用率(代謝에너지 기준)

單位: 百萬 Mcal

	配合飼料供給 (A)	總所要量 (B)	配合飼料利用率 (A/B)
1975	3,054.2	14,279.6	21.4%
1976	3,280.2	15,087.6	21.7
1977	4,781.8	16,650.0	28.7
1978	6,978.3	18,276.3	38.2
1979	10,382.7	20,554.0	50.5
1980	9,025.7	21,386.2	42.2
1981	9,883.1	20,035.9	49.3
1982	12,581.0	21,607.5	58.2

表 7 畜産物 生産에 필요한 代謝에너지 基準의 自給率

單位：百萬 Mcal, %

	최 고 기			왜 지 고 기			닭고기·달걀			우 유*			畜産物 全體		
	總 量	輸入分	自給率	總 量	輸入分	自給率	總 量	輸入分	自給率	總 量	輸入分	自給率	總 量	輸入分	自給率
1975	6,557.9	92.8	98.6	2,630.6	399.8	84.8	3,956.0	1,567.4	60.4	1,135.1	418.9	63.1	14,279.6	2,478.9	82.6
1976	6,466.6	92.0	98.6	3,151.9	480.7	84.7	4,192.7	1,865.0	55.5	1,276.4	359.4	71.8	15,087.6	2,797.1	81.5
1977	6,693.4	205.6	96.9	3,460.4	847.5	75.5	4,909.4	2,573.0	47.6	1,586.8	575.8	63.7	16,650.0	4,201.9	74.8
1978	6,986.7	503.3	92.8	4,048.6	1,219.8	69.9	5,234.7	3,784.0	27.7	2,006.3	680.9	66.1	18,276.3	6,188.0	66.1
1979	7,327.1	607.0	91.7	4,999.5	2,855.4	42.9	5,879.8	5,000.6	15.0	2,347.7	994.0	57.7	20,554.0	9,457.0	54.0
1980	7,145.9	674.7	90.6	5,322.7	1,893.9	64.4	6,248.9	4,403.6	29.5	2,668.7	1,134.8	57.5	21,386.2	8,107.1	62.1
1981	5,977.4	999.5	83.3	4,793.5	2,026.8	57.7	6,118.6	4,703.9	23.1	3,146.4	1,133.9	64.0	20,035.9	8,864.0	55.8
1982	6,341.9	1,721.4	72.9	5,490.1	3,175.4	42.2	6,303.5	5,281.4	16.2	3,472.0	1,469.2	57.7	21,607.5	11,647.3	46.1

* 젓소의 維持飼料의 일부는 쇠고기 生産分으로 取扱計算(本文 참조).

지금까지의 生産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모아 畜産物의 生産에 필요한 代謝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自給率을 계산한 것이 <表 7>이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産卵鶏는 결국 肉類로 공급될 것으로 보아 닭으로 合計値를 계산하였으며 소의 경우는 쇠고기 輸入이 있기 때문에 分離計算을 하였으나 이것을 牛乳生産과 구별하기 위하여 젓소와 비육우의 비율로 할당하여 계산하였다.

<表 7>에서 보는 것처럼 畜産物 生産에 있어 自給率이 높은 것은 粗飼料의 이용이 많은 쇠고기로서 1982년 72.9%의 自給率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養豚으로 42.2%의 自給率을 보여 주고 있다. 配合飼料의 利用率이 가장 높을 것

으로 생각되던 養鶏部門은 自給率이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配合飼料의 利用率이 증가함에 따라 畜産 全體로서의 自給率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1982년에는 46.1%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畜産物의 純自給率

여기서 純自給率이란 畜産物 자체의 自給率뿐만 아니라 飼料部門의 自給率까지를 포함시켜 일컫는 用語로 사용코자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純自給率은 物財뿐만 아니라 固定資産의 用

表 8 肉類의 國內自給率

單位：%, %

	최 고 기			왜 지 고 기			닭고기	肉 類 合 計			
	總消費量	輸 入 分	自給率	總消費量	輸 入 分	自給率		總消費量	總消費量	輸 入 分	自給率
1975	70,292	—	100.0	107,279	△8,431	108.5	55,594	233,165	△8,431	103.8	
1976	75,533	700	99.1	113,618	△4,572	104.2	60,886	250,037	△3,872	101.5	
1977	81,624	4,200	94.9	146,266	△4,955	103.5	73,052	300,942	△755	100.3	
1978	114,731	40,444	64.7	177,984	6,372	96.4	82,189	374,904	46,816	87.5	
1979	113,827	27,333	76.0	225,307	6,260	97.7	89,723	428,857	33,593	92.2	
1980	99,974	6,876	93.1	241,842	2,524	99.0	90,866	432,682	9,400	97.8	
1981	93,202	23,930	74.3	209,831	224	99.9	90,646	393,679	24,154	93.9	
1982	106,506	45,010	57.7	237,530	—	100.0	99,183	443,219	45,010	89.8	

註：△표는 輸出量임.

資料：畜協中央會, 「畜産物需給 및 價格資料」, 1983.

表 9 畜産物の品目別年度別純自給率¹⁾

單位：%

	쇠 고 기			돼 지 고 기			養 鷄 産 物			牛 乳 ²⁾			全 體 ³⁾		
	畜産物 自給率	畜産物生 産自給率	純自 給率	畜産物 自給率	畜産物生 産自給率	純自 給率	畜産物 自給率	畜産物生 産自給率	純自 給率	畜産物 自給率	畜産物生 産自給率	純自 給率	畜産物 自給率	畜産物生 産自給率	純自 給率
1975	100.0	98.6	98.6	108.5	84.8	92.0	100.0	60.4	60.4	100.0	63.1	63.1	103.8	82.6	85.7
1976	99.1	98.6	97.7	104.2	84.7	88.3	100.0	55.5	55.5	100.0	71.8	71.8	101.5	81.5	82.7
1977	94.9	96.9	92.0	103.5	75.5	78.1	100.0	47.6	47.6	100.0	63.7	63.7	100.3	74.8	75.0
1978	64.7	92.8	60.0	96.4	69.9	67.4	100.0	27.7	27.7	100.0	66.1	66.1	87.5	66.1	57.8
1979	76.0	91.7	69.7	97.7	42.9	41.9	100.0	15.0	15.0	100.0	57.7	57.7	92.2	54.0	49.8
1980	93.1	90.6	84.3	99.0	64.4	63.8	100.0	29.5	29.5	100.0	57.5	57.5	97.8	62.1	60.7
1981	74.3	83.3	61.9	99.9	57.7	57.6	100.0	23.1	23.1	100.0	64.0	64.0	93.9	55.8	52.4
1982	57.7	72.9	42.1	100.0	42.2	42.2	100.0	16.2	16.2	100.0	57.7	57.7	89.8	46.1	41.4

1) 純自給率=畜産物自給率×畜産物生産自給率.

2) 젖소의 維持飼料 중 일부는 쇠고기 供給分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自給率이 낮게 나타났음(本文 참조).

3) 肉類合計를 基準으로 計算한 結果임.

役, 勞働費用 등을 포함하고 특히 附加價値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用語의 사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변동이 심한 가격과 評價가 곤란한 用役費 등의 산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純自給率을 飼料供給과 지만을 한정하여 계산하기로 하였다.

먼저 畜産物 자체의 自給率만을 보면 <表 8>과 같다. 여기서 달걀, 우유, 닭고기 등의 輸入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畜産物の 自給率도 마찬가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쇠고기 輸入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모아 畜産物の 純自給率을 계산한 것이 <表 9>인데, 이 表의 註와 같은 計算順序를 알아 만들어진 것이다.

<表 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닭고기와 달걀은 항상 같은 파라미터를 갖게 되므로 <表 9>에서는 養鷄産物로 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쇠고기는 쇠고기 자체의 輸入 때문에 純自給率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은 이들의 생산에 있어 配合飼料의 利用率이 크게 증대함에 따

라 純自給率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는 말

「우리 나라 국민들은 쇠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쇠고기의 생산이 부족하여 쇠고기의 공급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過剩生産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畜産物の 自給率을 높이고 畜産의 均衡的인 發展을 위하여는 國民들이 돼지고기나 닭고기의 消費를 增大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論理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純自給率이란 概念을 이용하여 제척하였다. 물론 여기서 얻어진 自給率의 數値는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강은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다.¹⁾ 또한 여기서 말하는 自給率은 投入財 중 飼料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쇠고기 1千

¹⁾ 여기에서 이용된 基準資料는 美國의 NRC (Animal Nutri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飼養標準의 各種營養素의 基準要求量 중의 代謝에너지이다. 그런데 이는 말하자면 最少要求量인 셈이므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어치 중 400원이 國內産이라는 식으로 부가가치의 개념이나 가격 개념으로 자급률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前提下에서 計算結果를 보면 生産에 있어서의 自給率은 쇠고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牛乳, 돼지고기, 닭고기와 달걀 순이었다.

純自給率은 1980년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닭고기와 달걀의 순이었으나, 1982년의 경우에는 우유,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와 달걀의 순이었다. 이는 1981년과 1982년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쇠고기 輸入 때문에 쇠고기의 純自給率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輸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닭고기와 달걀의 純自給率이 가장 낮고 돼지고기의 純自給率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畜産物 자체의 輸入 뿐만 아니라 飼料原料의 輸入이 畜産部門의 自給率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養鷄나 養豚部門이 專門化, 大規模化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配合飼料의 이용이 계속 증대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部門 즉 닭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달걀의 輸入이 없다고 하여도 이들의 自給率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表 9).

반면에 配合飼料에 대한 依存度가 비교적 낮은 쇠고기와 牛乳는 粗飼料供給基盤이 크게 확대된다면 그 自給率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실정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많은 農家가 所得水準의 向上을 위해 소 飼育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粗飼料의 生産增大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손쉬운 配合飼料의 利用率이 크게 增加하고 있는 실정이다(表 7).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 나라 畜産部門의 自給率은 飼料資源의 확대와 粗飼料生産基盤의 擴大造成이 없는 한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序頭에서의 논리처럼 만일에 自給率의 향상에 畜産政策의 목표가 있다면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의 消費增大를 촉진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 畜産部門의 海外從屬性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畜産物의 自給率을 높이려면 쇠고기의 가격을 현실화하여 쇠고기의 增産을 유도하거나 輸入飼料原料의 利用價格을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國內飼料資源의 개발과 이용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